

격몽요결(擊蒙要訣)¹⁾

※ 본 내용은 『격몽요결』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며 번역은 『율곡전서』(한국고전 종합 DB,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을 따랐다. 경우에 따라 강의 내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하였으며 수업교재로 쓰기 위해 제작했으므로 영리 목적은 없음을 밝힌다.

격몽요결서(擊蒙要訣序)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學問)이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른바, 학문이란 것은 역시 이상스럽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아비 된 자는 자애(慈)로워야 하며, 자식 된 자는 효도(孝)해야 하고, 신하 된 자는 충성(忠)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別)이 있어야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友)로워야 하며,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敬)해야 하고, 친구 간에는 신의(信)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에 따라 각기 마땅한 것을 취할(各得其當) 뿐이요, 현묘한 것에 마음을 두어 기이한 것을 노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문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꼭 막혀 있고 식견이 좁기 때문에 모름지기 글을 읽고 그 이치를 연구하여 행해야 할 길을 밝힌 뒤에야 학문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을 얻고 실천함이 합당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은 모르고 망녕되게 높고 멀어(高遠)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고 자기는 자포자기하니,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내가 해산(海山, 海州)의 남쪽에 있을 때 한두 학생이 찾아와 학문을 물었다. 내가 스승이 될 만한 게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처음 학문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모르고, 굳은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배우겠다고 한다면 피차에 도움 될 것이 없고 도리어 남의 조롱만 사게 될까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간략하게 책 한 권을 써서 마음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대략 서술하여 《격몽요결》이라 이름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서 마음을 씻고 즉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자 한다. 나 역시 오랫동안 구습에 얽매어 괴로워하던 차에 이것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정축년(1577) 12월 덕수(德水)²⁾ 이이(李珥) 씀.

제1장 입지(立志)

처음 배우는 이는 먼저 뜻을 세우되(立志) 반드시 성인(聖人)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게 여겨 몰려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반 사람(衆人)도 그 본성은 성인과 똑같다. 비록 기질에는 맑고 흐림과 순수하고 뒤섞인 차이가 없을 수 없으나,³⁾ 참답게 알고 실천하여 젖어 온 구습(舊習)을 버리고, 그 본성(本性)을 되찾을 수 있다면, 털끝만큼도 더 보태지 않아도 온갖 선함을 다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일반 사람이라 해서 성인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맹자가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시면서 말했다 하면 요순(堯舜)을 들어 실증하면서, “사람이면 누구나 요순처럼 될 수 있다.” 하였으니, 어찌 우리를 속인 것이겠는가.

항상 스스로 분발(奮發)해서,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

1) 격몽요결(擊蒙要訣) : 선생이 42세 때에 부제학을 사퇴하고 3월에 파주(坡州) 울곡(栗谷)에 돌아왔다가, 10월에 해주(海州) 석담(石潭)으로 가서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제자를 가르칠 때에 지은 책으로 학자들에게 도학(道學)의 입문을 제시한 책이다. 격몽(擊蒙)은 몽매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2) 덕수(德水) : 울곡의 본관이다.

3) 성인은 기질이 맑은 데 반하여 중인(衆人)은 탁하고, 성인은 기질이 순수한 데 반하여 중인은 잡것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인은 유독 성인이 되고, 나는 유독 평범한 사람이 되는가. 이는 진실로 뜻이 서지 못하고 앎이 분명치 못하고, 행함이 독실하지 못해서이다. 뜻을 세우는 것과 밝게 아는 것과 독실하게 행하는 것 모두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안연이 말하기를, “순(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처럼 행하면 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였는데, 나도 안연이 순처럼 되기를 바란 것으로 범도로 삼아야겠다고 여겨야 한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예쁘게 바꿀 수 없고, 체력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없고, 키가 작은 것을 크게 할 수 없으니, 이는 모두 정해진 분수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心志)**는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고칠 수 있고, 못난 것을 현명하게 고칠 수 있으니, 이것은 텅 비어 신령스러운 마음이 타고난 분수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어진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어질고 지혜롭게 되지 못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本性)을 망치는가. 사람이 이런 뜻을 가지고, 결코 물려서지 않는다면 **도(道)**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立志) 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미적거리며 미루는 것은 뜻을 세웠노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성의껏 배우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학문하는 데 뜻을 둔다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서 하고자 하면 된다. 그러니 어찌 남에게서 얻으려 하며 후일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뜻을 세우는 것이 귀한 이유는 공부에 착수해서는 혹시라도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고 한 생각도 여기서 물려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뜻이 성실하지 못한 채로 그럭저럭 시일만 보낸다면 늙어 죽을 때가 된다 한들 무슨 성취가 있겠는가.

제2장 혁구습(革舊習)

사람이 비록 학문에 뜻이 있어도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성취할 수 없음은 옛 습관이 방해함이 있어서이다. 아래에 열거한 옛 습관의 조목을 뜻을 가다듬어 확실히 끊어 버리지 못한다면, 끝내 학문할 바탕이 없을 것이다.

첫째, 뜻을 게을리하고 그 몸가짐을 함부로 하고, 다만 편히 지낼 것만 생각하고 구속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것.

둘째, 항상 돌아다닐 생각만 하고 조용히 안정하지 못하며, 분주히 드나들며 떠들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셋째, 같은 것은 즐기고 다른 것은 미워하여, 속된 데로 빠져들었다가 좀 신칙해 보자니 무리와 어긋날까 두려워지는 것.

넷째, 글을 꾸미기를 좋아하여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경전의 글을 따다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다섯째, 편지글을 짓고 거문고 타고 술 마시는 것을 일삼으며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도 스스로는 깨끗한 운치라 여기는 것.

여섯째, 한가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바둑이나 장기 두기를 즐기며 종일토록 **배불리** 먹을 것을 다루는 데만 쓰는 것.

일곱째, 부귀를 부러워하고 빈천을 싫어하여 나쁜 옷 입고 거친 음식 먹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여덟째, 기욕(嗜慾)을 절제하지 못하여, 금전의 이익과 노래와 여색을 꿀맛처럼 달게 여

기는 것.

옛 습관 중에 마음을 해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은데 그 나머지는 다 열거하기 어렵다. 이러한 습관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도 독실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한 것은 내일도 고치기 어렵게 하고 아침에 후회하였던 행동을 저녁에 다시 저지르게 하니, 모름지기 용맹스러운 뜻을 크게 떨쳐 한칼에 나무를 뿌리째 베 버리는 것처럼 하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 털끝만 한 찌꺼기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통렬히 반성하여 마음에 한 점도 옛 습관에 물든 더러움이 없게 된 뒤에야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지신(持身)

학자는 반드시 성심으로 도를 향하고, 세속의 잡다한 일로써 자기의 뜻을 어지럽히지 않은 뒤에야 학문의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과 신을 주로 하여야 한다.[主忠信]**”⁴⁾ 하시고, 주자(朱子)가 해석하기를, “사람이 충성스럽고 신실하지 않으면 일이 모두 성실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기는 쉽고 선을 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를 가지고 주를 삼아야 한다.” 하였다. 반드시 충신을 위주로 하여 용감하게 공부를 시작한 후에야 성취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황면재(黃勉齋)⁴⁾가 이른바, “마음을 진실하게 하라” 고 한 말과 “뼈를 꺾는 노력을 하라.” 고 한두 마디 말에 그 뜻이 다 들어 있다.

모름지기 항상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의관을 바르게 하고 용모와 안색을 반드시 엄숙하게 하고 두 손을 바로 모으고 곳곳이 앉으며, 걸음걸이는 차분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여, 모든 행동을 경솔히 하거나 구차하게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데는 구용(九容)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으며, 학문을 진취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데는 구사(九思)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이른바 구용(九容)이란 다음과 같다.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라.[足容重] 거동을 가볍게 하지 말라. 만약 어른 앞을 지나갈 적에는 여기에 구애되지 않아야 한다. 손가짐을 공손히 하라.[手容恭] 손은 아무렇게나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일이 없을 때는 단정히 모으고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눈 모양은 단정히 하라.[目容端] 눈을 바르게 두어야 하고 흘려보거나 간사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입은 가만히 다물라.[口容止]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말소리는 조용히 하라.[聲容靜] 소리와 기운을 잘 가다듬어야 하며 재채기나 가래 등의 잡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머리 모양은 항상 똑바로 두라.[頭容直] 머리를 항상 곧게 하고 몸을 반듯이 세워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비스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숨쉬기를 정숙히 하라.[氣容肅] 숨쉬기를 잘 조절하고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설 때는 덕스럽게 하라.[立容德] 한쪽으로 비뚤어지게 서지 말고 똑바로 서서 덕스러운 기상이 있어야 한다. 얼굴 모습은 장엄하게 하라.[色容莊] 얼굴 모습을 가다듬고 태만한 기색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구사(九思)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밝게 보기를 생각할 것.[視思明] 보는 데 가려짐이 없으면 환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할 것.[聽思聰] 듣는 데 막힘이 없다면 분명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안색은 온화하게 하기를 생각할 것.[色思溫] 안색은 온화하게 하여 노한 기색이 없음이다. 모습은 공손히 할 것.[貌思恭] 몸에 단정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다. **말하는 데는 충(忠)을 생각할 것.[言思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4) 황면재(黃勉齋) : 송대(宋代)의 학자인 황간(黃幹)으로, 자는 직경(直卿)이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주자(朱子)의 문인이자 사위로 저서를 물려받았다.

충신(忠信)하지 않음이 없음이다. 일하는 데는 경건하게 할 것을 생각할 것.[事思敬] 한 가지 일이라도 경건하게 하지 않음이 없음이다. **의문이 있을 때는 묻기를 생각할 것.[疑思問]** 마음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선각에게 나아가 아낌없이 모르는 것을 묻는다. 분할 때에는 어려움이 닥칠 것을 생각할 것.[忿思難] 성이 나거든 잘 다스려 이성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이득을 얻으면 의에 합당한지를 생각할 것.[見得思義] 재물을 보거든 의리인지 이익인지를 분명히 가려 의에 합당한 연후에 취해야 한다는 것. 항상 구용·구사를 마음에 두고 몸가짐을 추슬러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또 앓는 한쪽에 써 두고 수시로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非禮勿視] 예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며,[非禮勿聽]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非禮勿言] 예가 아니거든 움직이지 말라[非禮勿動]는 이 네 가지 말은 **수신(修身)**하는 요점이다. 예와 예가 아닌 것을, 초학자로서는 분별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여[窮理] 밝혀야 한다. **이미 아는 데에서 힘써 행하기만 하면 도의 경지에 반 이상은 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니, 만일 평소에 공손하게 거하고 공경스럽게 일을 처리하며 충(忠)으로 남을 대하면 이를 학문이라 할 것이니, 글을 읽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밝히고자 해서일 뿐이다.

의복은 사치스럽게 입어서는 안 되니 추위를 막는 정도면 된다. 음식은 맛있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되니 주림을 면할 정도면 된다. 거처는 안락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되니, 병이 나지 않을 정도면 된다. 오직 학문에 대한 노력과, 마음을 바르게 함과, 예의를 법도에 맞게 지키는 일은 날마다 힘쓰고 힘써야 하며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사욕을 이기는[克己] 공부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절실하다. 이른바 자기[己]라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천리(天理)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내 마음이 색(色)을 좋아하는가, 이(利)를 좋아하는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벼슬을 좋아하는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좋아하는가, 잔치하며 놀기를 좋아하는가, 진기한 보배를 좋아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좋아하는 것들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끗이 없애 버려 싹도 남겨 두지 않은 뒤에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하여 이겨 낼 자기[己]가 없게 될 것이다.

말 많고[多言], 생각 많은 것[多慮]이 마음에 가장 해로우니, 일이 없으면 정좌(靜坐)하여 존심(存心)하고, 남들을 접대할 때는 마땅히 말을 가려서 간결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때에 맞게 말하면 말이 간결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 간결한 자는 도에 가깝다. 선왕의 법복(法服)이 아니면 감히 입을 수 없고, 선왕의 법언(法言)이 아니면 감히 말할 수 없으며,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일생토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문하는 자는 한결같이 도를 향해야 할 것이니, 외물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바르지 못한 외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일 바둑·장기·쌍륙 등의 노름을 하거든 눈길도 주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창기(倡妓)들이 가무하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피해 가야 할 것이다. 고을 대회에서 고을 어른이 억지로 붙잡아 피해 물러날 수 없거든, 자리에 있더라도 용모를 바로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간성(奸聲)과 난색(亂色)이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잔치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잔뜩 취하지 않도록 하고 알맞게 마신 뒤에는 그만 마시는 것이 좋다.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하니, 마음껏 먹다가 기(氣)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말과 웃음은 간결하고 신중히 해야 하며 시끄럽게 떠들며 법도를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행동거지는 차분해야 하니, 엄병덤병하여 몸가짐을 홀뜨려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치에 맞게 처리해야 하고, 글을 읽을 적에는 정성을 다해 이치를 따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정좌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가운데 복잡하게 일어나는 생각이 없이 항상 깨어 있어 명칭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경으로 마음을 곧게 하라.[敬以直內]”는 말이 이와 같은 뜻이다.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안팎이 같아야 하며 그윽한 데서도 드러난 데서와 같이 하며,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와 같이하여, 이 마음을 사람들이 맑은 하늘의 맑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항상, “한 가지 불의를 저지르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行一不義 殺一不辜而得天下 不爲]”는 뜻을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경에 거하여[居敬] 그 근본을 세우며, 이치를 궁구하여 선(善)을 밝히며, 힘써 행하여 실천해야 하니, 이 세 가지는 평생 해야 할 일이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思無邪]’는 구절과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毋不敬]’는 구절은 일생 동안 쓰더라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벽에 걸어 두고 잠깐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음을 보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배움에 진전이 없지는 않은가’, ‘행실에 힘쓰지 않은 점이 있는가’ 하고 매일 자주 점검하여, 이런 점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서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4장 독서(讀書)

배우는 자는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여 사물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여 선(善)을 밝힌 연후에야 마땅히 행해야 할 도(道)가 뚜렷하게 앞에 있어 진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도에 들어가는 데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으며,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 독서(讀書)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성현(聖賢)의 마음을 쓴 자취와 본받을 선(善)과 경계할 악(惡)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독서를 하는 자는 반드시 단정하게 팔짱을 끼고 바르게 앉아 공경스럽게 책을 대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극진히 하고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이해해 깊은 의미를 알되, 구절마다 반드시 그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한다. 만일 입으로만 읽지,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몸으로 행하지도 못한다면, 글은 저대로 글일 뿐이요, 또한 나는 나대로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먼저 《소학(小學)》을 읽어 부모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웃어른에게 순종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음미하여 힘써 행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대학(大學)》 및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窮理] 마음을 바르게 하며[正心], 몸을 닦고[修己], 사람을 다스리는[治人] 도리를 하나하나 참으로 알아내어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논어(論語)》를 읽어서, 인(仁)을 구하고,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을 하고, 본원(本原)을 함양하는 공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생각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맹자(孟子)》를 읽어서, 의리(義利)를 밝게 분별하는 것과 인욕(人欲)을 막고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는 설(說)에 대해 하나하나 밝게 살펴서 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다음에는, 《중용(中庸)》을 읽어서, 성정(性情)의 덕(德)과, 이치를 미루어 아는 공[推致

之功]과, 만물이 길러지는 오묘한 이치를 하나하나 음미하고 찾아내어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시경(詩經)》을 읽어서, 성정(性情)의 그릇됨과 올바름, 선을 표창하고 악을 경계한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궁구하여 감동을 느껴 자신의 행동을 징계(懲戒)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예경(禮經)》을 읽어서, 하늘의 이치가 알맞게 드러나는 것[節文]과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儀則]의 도수(度數 정해진 법도)에 대해 하나하나 그 이치를 궁구하여 확립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서경(書經)》을 읽어서 이제(二帝 요순)·삼왕(三王 하(夏)나라 우왕(禹王)·은(殷)나라 탕왕(湯王)·주(周)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륜(大經綸)과 큰 법[大法]에 대해 하나하나 요령을 얻고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다음에는 《주역(周易)》을 읽어서, 길흉(吉凶)·존망(存亡)·진퇴(進退)·소장(消長)의 기미[幾]를 하나하나 관찰하고 음미하여 끝까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는 《춘추(春秋)》를 읽어서, 성인(聖人)의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 잘못은 억누르고 잘한 일은 드높여 주어, 조종하는 은근한 말[微辭]과 심오한 뜻을 하나하나 정밀히 연구하여 깨달아야 한다.

5서(書)와 5경(經)을 돌려 가면서 많이 읽어, 끊임없이 이해하면 의리(義理)가 나날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송(宋)나라 때의 선현(先賢)들이 지은 《근사록(近思錄)》·《가례(家禮)》·《심경(心經)》·《이정전서(二程全書)》·《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와 같은 서적과 그 밖의 성리학설을 틈틈이 정독(精讀)하여 의리가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남은 힘으로는 역사서를 읽어 고금의 일과 사건의 변천에 통달하여 식견을 길러야 한다. 이단(異端)이나 잡다한 류의 바르지 못한 서적은 잠시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독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책 한 권을 숙독(熟讀)하여서 의미를 모두 알아 의심이 없이 확실히 알게 된 후에 다른 책으로 바꿔 읽어야 하니,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고 무언가 얻어 내는 데만 힘써 이것저것 바빠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제5장 사친(事親)

사람이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으되, 실제로 효도를 하는 이가 매우 드문 것은 어버이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해서이다. 《시경(詩經)》에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으니, 이 은덕을 갚고자 해도 하늘과 같이 넓고 끝이 없도다.[父兮生我 母兮鞠我 欲報之德 昊天罔極]” 자식이 태어날 적에 성명(性命)과 혈육(血肉)이 모두 어버이가 남겨 주신 것이다. 숨을 쉬어 호흡할 때에 기(氣)와 맥(脈)이 서로 통하니 이 몸은 내 사사로운 것이 아니요, 바로 부모가 남긴 기(氣)이다. 그러므로 《시경》에, “슬프도다. 부모께서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수고하셨네.[哀哀父母 生我劬勞]” 라고 하였으니, 부모의 은혜가 어떠한가. 어찌 감히 제 마음대로 하며 부모에게 효(孝)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마다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어버이 에 대한 섬김이 성실해질 것이다.

무릇 부모를 섬기는 자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행동이라도 감히 제 뜻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명령을 받은 후에 행해야 한다. 만일 해야 할 일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승낙을 얻은 후에 행해야 한다. 만약 끝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 의사대로 곧장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날마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갖춘 후에 부모의 침소(寢所)에 나아가 기색을 낮추고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더우신지 추우신지 안부를 여쭙고,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부모의 침소에 가서 이부자리를 보아 드리고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피며, 평소 모실 때에는 항상 화평하고 기쁜 안색으로 공경스럽게 응대하고 곁에서 봉양할 때는 정성을 다하며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절하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니, 만약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 보면 끝내 부모를 모실 날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집안일을 맡아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한 연후에야 자식의 직분을 닦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굶이 듣지 않으시면 비록 집안일을 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뒤를 보살피 도와 드려서, 부모님께 잡수실 것을 장만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 입맛에 맞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좋다. 만약 모든 생각을 부모 봉양에 쏟는다면 맛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왕연(王延)이 엄동설한에 성한 옷 한 벌도 없으면서 부모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다 해 드렸음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여 눈물이 흐르게 한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이 공경보다 지나친 경우가 많다. 철저히 구습(舊習)을 씻어버리고 존경함을 극진히 하여 부모가 앉거나 누워 계시던 곳에 자식이 감히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하며, 부모가 손님을 맞이하던 곳에서 자식이 감히 제 손님을 맞이해선 안 되며, 부모가 말을 타고 내리는 곳에서 자식이 감히 말을 타고 내려서는 안 된다.

부모의 뜻이 의리(義理)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받들어 털끝만큼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의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화평한 기색과 부드러운 말소리로 간하고 반복해서 아뢰어 반드시 따라 주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이 병환이 있으시면 근심스러운 마음과 염려하는 기색으로 다른 일을 제쳐 놓고 오로지 의사에게 묻고 약을 지어 오는 것에만 힘써야 하며 병이 나으시면 다시 평소대로 한다.

일상생활에 있어 한순간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은 연후에야 효도라고 이름할 수 있으니, 제 몸가짐이 근실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법도가 없으며 놀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모두 부모를 잊은 자이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부모를 오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식 된 자는 모름지기 정성과 힘을 다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미치지 못하지나 않는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옛사람의 시에, “하루의 부모 봉양은 삼공(三公)의 부귀와도 바꾸지 않겠다.[一日養 不以三公換]” 고 하였으니, 이른바, “날을 아낀다.” 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제6장 상제(喪制)

상제(喪制)는 마땅히 주 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를 따라야 한다.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으면 먼저 예(禮)를 아는 웃어른에게 물어서 반드시 그 예(禮)를 다하는 것이 옳다.

초혼[復]할 때에는 세속에서 으레 어려서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은 예(禮)가 아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어른일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며, 살아 계셨을 적에 부르던 대로 하는 것이 옳다. 부녀(婦女)일 때에는 더욱이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喪主)가 되니, 축문(祝文)도 모두 지아비가 지어미에게 고하는 예(例)를 써야 할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바로 처첩(妻妾)과 며느리 등 여자들은 모두 머리를 풀며, 남자는 머리 풀고 옷고름을 풀고 맨발을 해야 한다. 소렴(小斂) 후에는 남자는 단갈(袒裼 왼쪽 어깨를 드러냄)하고 머리를 묶으며 부녀는 머리를 몽뽕그려 틀어 올린다. 만약 양자(養子)이거나 시집을 간 여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벗지 않는다.

시체가 방에 있고, 빈(殯)을 아직 하지 않았을 때에 남녀가 시체의 곁에 있을 때, 그 위치는 남쪽을 윗자리로 하는데, 이는 시체의 머리가 있는 곳을 위로 하기 때문이다. 빈소(殯所)를 차린 뒤에는 여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상(堂上)에 자리하되 남쪽을 윗자리로 삼고, 남자는 계하(階下)에 자리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삼으니, 이는 빈소가 있는 곳을 위로 하기 때문이다. 발인(發靚)할 때에는 남녀의 석차(席次)가 다시 남쪽을 위로 하니, 이것은 영구(靈柩)가 있는 곳을 위로 삼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는 데에는 각기 예(禮)의 뜻이 있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예를 이해하지 못하여 조객(弔客)이 위문할 때마다 전혀 기동(起動)하지 않은 채 엎드려 있기만 하는데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객이 영전(靈前)에 절하고 나오면 상주(喪主)도 상차(喪次)에서 나와 조객을 향해 두 번 절하고 곡(哭)을 하는 것이 옳다. 조객은 답배(答拜)해야 한다.

최질(衰絰)⁵⁾은 질병이 있거나 일할 때가 아니면 벗어서는 안 된다.

《가례(家禮)》에, 부모의 상(喪)에는 성복(成服 초상이 나서 상복을 입는 것)하는 날에야 죽을 먹고, 졸곡(卒哭)⁶⁾하는 날에야 거친 밥을 먹고 현미(玄米)로 지은 밥[糲飯]이다. 물을 마시며, 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 채소와 과실은 먹지 않는다. 소상(小祥)이 지난 후에야 채소와 과실을 먹어도 되고, 국도 먹을 수 있다. 예문(禮文)이 이와 같으니, 병이 나지 않았으면 예문대로 해야 한다. 어떤 이는 예(禮)가 지나쳐서 3년 동안이나 죽을 먹었다 하는데, 만일에 그가 참으로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고 털끝만큼도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보다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 옳다 하겠다. 그러나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한테 억지로 지나치게 예를 차리는 것이라면 이는 제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니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 예를 아는 집에서 흔히 장례 후에 반혼(返魂)⁷⁾을 하는데, 이는 진실로 바른 예[正例]이다. 그러나 세속 사람들이 무턱대고 남을 따라 해 시묘살이를 하는 풍속을 마침내 폐지하고, 반혼한 후에는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거하여, 예법이 크게 무너졌으니, 매우 한심스럽다. 아버지의 상(喪)을 당한 자가 스스로 헤아려서 일일이 예를 좇아서 털끝만큼이라도 결함이 없다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 반혼해야 하겠거니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옛 풍속대로 시묘살이하는 것이 옳다.

부모상(父母喪)에, 성복(成服)하기 전에는 울음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기진(氣盡)하면 남녀 하인들을 시켜서 대신 곡(哭)하게 한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때를 정하지 않고 슬픔이 지극하면 곡을 할 것이며, 졸곡(卒哭) 후에는 아침저녁 두 번만 곡을 할 뿐이다. 예문(禮文)이 대개 이와 같으니, 만일에 효자의 정(情)이 지극하다면 곡(哭)함에 어찌 정한 수가 있겠는가. 무릇 상사(喪事)에 있어서 애통함이 부족하고 예(禮)가 남음이 있는 것보다는 예가 부족하더라도 애통함이 남음이 있는 것이 나으니, 상사는 그 애통함과 공경함을 다하

5) 최질(衰絰) : 최(衰)는 상복(喪服)을 말한다. 질(絰)은 머리에 두르는 수질(首絰)과 허리에 두르는 요질(腰絰)을 말한다.

6) 졸곡(卒哭) :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즉 사람이 죽은 지 석 달이 되는 초정일(初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7) 반혼(返魂) : 장사를 지낸 뒤에 죽은 이의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 오는 일을 말한다.

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증자(曾子)가 말씀하기를, “사람에겐 친상(親喪)만큼 스스로 극진히 해야 할 것이 없다.” 하였으니,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것[送死者]은 아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여기에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옛날에 소련(少連)·대련(大連)이 거상(居喪)을 잘하여 사흘 동안 태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게으르지 아니하며, 1년 동안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거상(居喪)하는 법이다. 효성이 지극한 이는 힘쓰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겠지만, 효성이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힘써서 이를 좇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거상할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를 좇을 수 없는 자는 진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혹 가다가 자질은 훌륭한데 배우지 못한 자가 한갓 예를 지키는 것만이 효도하는 것인 줄 알고, 생명을 상하는 것이 바름[正]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쇠약해져서 몸에 병이 생겼는데도 차마 권도(權道) 병이 있으면 육식(肉食)을 하는 것)를 따르지 못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목숨을 상하는 것을 군자(君子)는 불효라고 하였다.

무릇 복(服)을 입어야 할 친척[有服親戚]의 상사(喪事)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訃音)을 들었다면 위패를 차리고 곡을 해야 한다. 분상(奔喪)⁸⁾을 하게 되면 집에 이르러 성복(成服)을 하되, 분상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흘 만에 성복한다. 재취(齋衰 1년상)의 복(服)이라면 성복하기 전 사흘 동안 아침저녁으로 위패를 차리고 곡을 하여야 한다. 재취를 대공(大功 9개월 상)으로 낮춘 자도 역시 이와 같다.

스승이나 벗으로서 의리가 중한 자와 친척으로서 복(服)은 없어도 정이 두터운 자와, 서로 알고 지내면서 교분이 친밀한 자는 부음(訃音)을 들은 날에 길이 멀어 초상에 갈 수가 없다면 있는 곳에서 위패를 차려 놓고 곡을 한다. 스승은 그 정(情)과 의리의 정도에 따라서 심상(心喪)을 3년, 혹은 기년(期年),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로 하고, 벗은 가장 교분이 깊다 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스승의 상(喪)에 삼년상이나 기년상(期年喪)을 행하고자 하는데 분상(奔喪)하지 못하는 자는 아침저녁으로 위패를 차리고 곡을 하되 나흘 만에 그친다. 나흘 되는 날 아침에 그치되, 만약 정이 깊은 자라면 이에 한하지 않는다.

복(服)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위패를 차리고 상복을 입고 모여 곡을 한다. 스승이나 벗은 비록 복이 없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달수가 모두 차면 다음 달 초하루에 위패를 차리고 상복을 입고 모여 곡을 하고 나서 치우는데, 그동안에 슬픔이 복받치면 곡을 해도 좋다.

무릇 대공(大功) 이상의 상(喪)에는 장사를 치르기 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해선 안 되며, 남의 상사에 조문하지도 말고, 항상 초상을 치르고 예를 강구하는 것만 일삼아야 한다.

제7장 제례(祭禮)

제사는 《가례(家禮)》를 따라 반드시 사당(祠堂)을 세워 선조의 신주를 모시며, 제전(祭田)을 두고 제기(祭器)를 갖추어 종자(宗子)가 주관해야 한다.

사당을 받드는 주인(主人)은 매일 새벽에 대문 안에서 뵈고 재배하며 주인(主人)이 아니면 주인을 따라 함께 뵈는 것도 무방하다. 출입할 때는 반드시 고해야 한다.

8) 분상(奔喪) : 타향에서 부음을 듣고 즉시 달려감을 말한다.

수재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적이 들면 먼저 사당을 구하여 신주와 집안에 물려 온 책들을 옮기고, 그다음에 제기(祭器)를 치운 뒤에 집안의 재물을 구하여야 한다.

정월 초하루 정조(正朝)와 동지, 초하루와 보름에는 참례(參禮)하고, 속절(俗節 단오·추석·중양절 등)에는 제철 음식을 올려야 한다.

시제(時祭 2월·6월·8월·11월)에는 산재(散齋) 4일, 치제(致齋) 3일을 하고, 기제(忌齋)에는 산재 2일, 치제 1일을 하며, 참례(參禮)에는 재숙(齋宿) 1일을 하는데 이른바 산재라는 것은 남의 상사나 병에 조상(弔喪)하거나 문병을 가지 아니하고 혼채(葷菜 파·마늘 등의 냄새나는 음식)를 먹지 않으며, 술을 마시더라도 취할 정도까지 마시지 않고, 모든 흥하고 더러운 일에는 모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길에서 흥하거나 더러운 것을 만나더라도 눈을 가리고 피하며 보아서는 안 된다. 이른바 치제라는 것은 음악을 듣지 않고 출입하지 아니하며, 판생각 없이 제사를 받을 분만 마음에 두고 그분이 생전에 거쳐하시던 곳을 생각하고, 웃고 말씀하시던 일을 생각하며, 평소에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고, 즐기시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야 제사를 드릴 때에 얼굴이 보이는 듯하고, 음성이 들리는 듯하니 정성이 지극해야 신령이 흠향하실 것이다.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 바치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니, 집안이 가난하면 가산의 규모에 따라 하고, 병이 들었으면 제 근력을 헤아려서 제사를 행한다. 재력이 미치는 자는 예법대로 행할 것이다.

묘제(墓祭)와 기제(忌祭)를 세속에서 자손들이 돌아가며 지내는데 이것은 예가 아니다. 묘제는 돌아가며 지내더라도 다 같이 묘에 가서 제사를 올리므로 그래도 괜찮으나, 기제는 신주에 제사하지 않고 지방(紙榜)을 붙이고 제사를 드리니 이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다. 비록 돌아가며 제사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제사 음식을 갖추어 가묘(家廟)에서 지낸다면 그런대로 괜찮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자손으로서 가장 정성을 바쳐야 할 부분이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는 또다시 봉양할 수는 없는데 초상에 예를 다하지 않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애통을 붙일 곳이 없고 훌러 버릴 만한 때가 없을 것이니, 자식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죽은 이에게 상례를 신중히 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의 덕이 돈후해질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할 바이다.

오늘날 풍속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제사를 지내는 법이 집집마다 같지 않으니 매우 가소롭다. 만일 예로써 한번 재단하지 않으면 끝내 문란하고 질서가 없어져 오랑캐의 풍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이에 제례(祭禮)를 뽑아 뒤에 부록(附錄)하고 또 그림을 그렸으니 자세히 살펴 이대로 따라 행하고, 만일 부형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간곡히 설명을 드려서 기필코 바른 데로 돌아가도록 하라.

제8장 거가(居家)

무릇 집에 있을 때는 예법을 신중하게 지켜서 처자와 집안사람들을 거느려야 한다. **직분을 각각 나누어 주고 일을 맡겨 성공을 책임 지우고,** 재물의 씹씀이도 절도가 있게 하여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고, 가산의 정도에 맞추어 위아래 사람의 의식(衣食)과 길흉의 비용에 충당하되, 모두 품절(品節)이 있고 균일하게 하며 긴요하지 않은 비용은 제재하여 줄이고, 사치를 금지하여 항상 여분(餘分)을 두어 유사시에 대비할 것이다.

관례(冠禮)와 혼례(婚禮)는 가례(家禮)를 따라야 하고 구차한 속례(俗禮)를 따라서는 안 된다.

형제는 부모의 유체(遺體)를 똑같이 받아 나와는 한 몸 같으니, 저와 나의 구별이 없이 생각하여 음식이나 의복이 있든 없든 간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가령 형은 굶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형은 따뜻하게 입고 있다면, 이것은 한 몸 가운데 한 군데는 병들고 한 군데는 건강한 것이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만일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같은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형제에게 착하지 못한 행실이 있다면 정성을 들여 충간(忠諫)하여 점차 이치를 깨달아 알아듣고 감동하게 해야 하고, 갑자기 노한 기색과 거슬리는 말을 해서 화기(和氣)를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비록 밖으로는 공지를 가지고 있으나, 안으로 독실함이 적어서 부부간의 이부자리에서 정욕에 방종하여 그 위신과 예를 잃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서로 버릇없이 굴지 않고 서로 공경할 수 있는 이가 매우 적다. 이러고서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으려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지아비는 온화하면서 의(義)로써 규제하며, 지어미는 유순하면서 바름으로써 지아비의 뜻을 받들어 부부간에 예의와 공경함을 잃지 않아야 집안 일이 다스려질 수 있다. 종전에 서로 버릇없이 굴다가 갑작스럽게 서로 공경하려면 하기 어려운 것이니 반드시 아내와 서로 조심하면서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점차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내가 내가 하는 말과 몸가짐이 한결같이 바른 것을 보게 되면 차츰 믿고 순종할 것이다.

자식을 낳으면 조금씩 알기 시작할 때부터 선(善)으로 인도해야 한다. 만일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라서는 그른 것에 습관이 들고 마음이 흩어져 가르치기 매우 어렵다. 가르치는 순서는 《소학(小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개 한 집안에 예법이 흥행하고 책과 필묵(筆墨) 이외에 다른 잡기(雜技)가 없으면 자제들도 다른 데 마음을 두어 학문을 멀리하는 염려는 없을 것이다. 형제의 자식도 내 자식과 같으니 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도 똑같이 해야 하고 자기 자식과 구별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인들은 나의 노고를 대신하니 은혜를 먼저 하고 위엄을 뒤로 하여야 그 마음을 얻을 것이니, 임금이 백성에게 대하는 것과 주인이 하인에게 주는 것은 그 이치는 같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백성은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며, 주인이 하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인은 흩어지고, 하인이 흩어지면 집안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인에게서는 반드시 배고프고 추운 것을 염려해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제 생계를 이루게 하고, 잘못이 있으면 우선 애써 가르쳐서 고치도록 하라. 가르쳐도 고쳐지지 않으면 매질을 하여, 주인의 매질이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한 다음에야 마음도 고치고 걸모습도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예법으로 안팎을 분별하여 비록 하인들이라도 남녀가 섞여 거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남종은 시킨 일이 없으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종은 모두 남편을 정하게 하여 음란한 행실을 하지 못하게 하되, 만일 계속해서 음란한 행실을 하는 자는 쫓아내어 따로 살게 하여 가풍(家風)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인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해야 하고 만일 싸우거나 시끄럽게 구는 자가 있으면 철저히 금제(禁制)해야 할 것이다.

군자는 도(道)를 걱정할 뿐이요, 집안이 가난한 것은 걱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안이 가난하여 살아갈 수 없으면 곤궁함을 구제할 계획은 생각해야 하지만, 역시 춥고 배고픈 것을 면할 정도면 될 뿐이고 재물을 모아 풍족할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세간에 비천한

일을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옛날 은자(隱者) 중에는 신을 삼아 먹고사는 이도 있고, 나무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 먹고사는 이도 있었으며, 밭을 갈아 먹고사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귀영화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에도 마음이 편한 것이었다. 만일 이해(利害)를 따지고 풍족한 살림을 꾀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마음의 해가 되지 않겠는가. 배우는 자는 부귀를 가볍게 알고 빈천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집안 살림이 가난하면 가난에 시달려 지킬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많다. 배우는 자는 바로 이 점에 노력해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곤궁할 때에 하지 않는 바를 보고, 가난할 때에 취하지 않는 바를 보라.” 하였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은 궁하면 도리에서 벗어난다.” 하였으니, 가난에 시달리다 못해 마음이 동하여 의(義)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학문은 해서 무엇 하겠는가. 무릇 사양하며 받고, 취하고 줄 때에는 반드시 의로운 것인가의 여부를 충분히 생각하여 의로운 것이면 취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면 취하지 말아서 털끝만치라도 허술히 넘겨서는 안 된다. 친구 사이에는 재물을 통용하는 의리가 있으니 주는 것은 받아야 하나 내가 가난하지 않은데 쌀이나 베를 준다면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아는 사이에도 명분이 있는 선물만 받고, 명분 없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른바 명분이 있다는 것은 상사(喪事)에 부의(賻儀)나 여행하는 데 필요한 노자, 혼사에 부조(扶助)하고, 양식이 없을 때에 보태 주는 따위를 말한다. 이와 같더라도 악한 자로서 내가 마음속에 더럽고 밋게 여기던 사람이 보낸 것은, 비록 그 선물이 명분이 선 것이라 하더라도 받으면 마음이 불안할 것이니, 마음에 불안하면 억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말며,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의를 행하는 방법이다.

중국에는 각 읍의 수령(守令)에게 사봉(私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남겼다가 남의 급한 사정을 보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령에게 별도로 사봉이 없고 그저 공곡(公穀)으로 일상의 비용을 지출한다. 만일 사사로이 남에게 주려면 다소를 막론하고 모두 죄가 되고, 심하면 뇌물을 준 죄로 다스리고 받은 자 역시 그러하니, 선비로서 수령이 주는 것을 받으면 이것은 금제(禁制)를 범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국정에 들어서면서 그 나라의 금령(禁令)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하니,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찌 자기 나라의 금령을 범하겠는가. 수령이 주는 것은 대체로 받기 어려우니, 만일 관고(官庫)의 곡식을 사사로이 주면 수령과의 친의와 명분의 유무, 수량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모두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교분이 두터운 수령이 자기의 사재(私財)로 궁박한 처지를 도와준다면 받을 수도 있다.

제9장 접인(接人)

무릇 사람을 접대하는 데는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하기에 힘써야 한다. 나이가 나보다 배가 되면 아버지처럼 섬길 것이요, 10년이 위이면 형으로 모시고, 5년 위라도 조금은 공경해야 하고, 학문을 믿고 자신을 높이거나 기운을 으뜸으로 알고 남을 능멸해서는 안 된다.

벗을 선택하되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숙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취하여, 그와 함께 있으면 규계(規戒)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나의 결함을 고치고, 만일 취한 자가 게으르고 장난을 좋아하며 유약하여 말이나 잘 꾸미고 정직하지 못한 자라면 사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을 사람으로 착한 자는 반드시 친근히 하여 서로의 사정을 알고 지내고, 고향 사람으로 착하지 못한 자도 나쁜 말로 그의 비루한 행위를 널리 퍼뜨리지 말고 그저 범범하게 대

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전날 서로 알던 사람이라면 만날 때 안부나 묻고 다른 말은 주고받지 않는다면 자연 멀어지게 되어 원망하거나 성을 내지는 않게 된다.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하고, 기상이 같으면 서로 찾게 되니 내가 학문에 뜻을 두면 내가 학문을 하는 선비를 찾게 되고 학문하는 선비도 나를 찾을 것이다. 명색이 학문을 한다면서 집에 잡객이 들끓고 시끄럽게 시일을 보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즐기는 것이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릇 절하는 예(禮)는 미리 정할 수 없다. 아버지의 친구에게는 절하고 동리에서 나보다 15세 위인 자에게도 절하고, 벼슬이 당상(堂上)에 오르고 나보다 10년이 연상이면 절하며, 마을 사람이 20세 위이면 절을 해야 한다. **그 사이에 높이느냐 내리느냐의 곡절은 때에 따라 맞출 것이니 반드시 이 등식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다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생각을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 《시경(詩經)》에, “따사롭게 공손한 사람이여, 덕의 기틀이도다.” 라고 하였다.

나를 훼방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내가 정말 훼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꾸짖어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고, 만일 나의 과실이 매우 적는데 그가 보태어 말했다면 그의 말이 지나쳤더라도 나에게 실로 훼방받을 근거가 있었으니, 역시 전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끊어 털끝만큼도 남기지 말아야 하고, 만일 나에게는 본래 허물이 없는데, 헛된 말을 지어낸 것이라면 그는 망녕된 사람일 뿐이니 망녕된 사람과 어찌 허실(虛實)을 따지겠는가.

그리고 헛된 비방은 바람이 꺾가를 스치고 구름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러고 보면 비방이 생겼을 때 내게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허물을 안 짓도록 더욱 힘쓸 것이니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만일 그런 비방을 듣고 시끄럽게 자신을 변명하여 자기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만 한다면, 그 허물은 더욱 깊어지고 비방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옛날에 어떤 이가 비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물으니, 문중자(文中子)가, “자신을 수양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하여 그 사람이 다시 한마디를 청하니,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이 배우는 자의 법이 될 만하다.**

무릇 선생이나 웃어른을 모실 때는 의리(義理)의 이해하기 어려운 곳을 여쭙어서 그 배움을 밝히고 향당(鄉黨)의 장로(長老)를 모실 때에는 공손하고 조심하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묻는 것이 있으면 공경히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친구와 같이 있을 때에는 도의로써 학문을 강구하고 연마하되 오로지 문자와 의리만을 말할 뿐이지, 세속의 비천한 말이나 시정(時政)의 득실, 수령(守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점, 남의 허물이나 좋지 않은 점은 일체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마을 사람과 어울릴 때 묻는 데 따라 응답하더라도 끝까지 비속한 말을 꺼내서는 안 되고 비록 점잖게 몸가짐을 하더라도 스스로 높은 체하는 기색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착한 말로 이끌어써 학문을 향하게 해 주어야 한다. 나보다 어린 자에게는 자상하게 효(孝)·제(悌)·충(忠)·신(信)을 설명하여 착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해 나간다면 향속(鄉俗)이 점점 변화할 것이다.

항상 온순하고 공손하며 자애로써 남을 이롭게 하고 사물을 이루어 주기로 마음먹고 남을 침해하고 사물에 손해 끼치는 일은 털끝만치라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대개 사람은 자기에게 이롭다면 반드시 남을 침해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배우는 자는 먼저 이욕(利慾)을 버리고 나서야 인(仁)을 배울 수 있다.**

시골에 사는 선비는 공사(公事)나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관가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고을의 수령이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주 가 보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친구도 아닌 데

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의롭지 못한 청탁 같은 것은 일절 해서는 안 된다.

제10장 처세(處世)

옛날 배우는 자는 벼슬을 구한 적이 없으나 학문이 성취되면 위에서 천거하여 등용하였으니 대개 벼슬은 남을 위한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과거(科擧)로 인재를 뽑게 되어 비록 천리(天理)를 통하는 학문과 인간에 뛰어난 행실이 있어도 과거가 아니면 출세하여 도(道)를 행할 수 없다.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고 형이 아우에게 권하는 것이 과거 외에는 다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선비의 풍습이 변한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이다. 다만 오늘날의 선비가 부모의 희망과 문호(門戶)의 계책을 위하여 과거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의 포부를 기르고 시기를 기다려서 잘되고 못되는 것은 천명에 맡길 것이요, 벼슬을 탐내어 조급하고 애태워 그 뜻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 공부에 얽매어 학문을 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은 평계의 말이요 성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옛사람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품팔이도 하며 쌀을 지고 다니던 자도 있었으니, 이렇게 할 때에 고생이 심한데 어느 겨를에 책을 읽었겠는가. 그들은 부모를 위하여 노력하며 자식의 직분을 닦고 남은 힘으로 글을 배워 덕(德)에 나아갈 수 있었다. 오늘날의 선비들은 옛사람같이 부모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볼 수 없고 다만 과거 공부 한 가지가 부모의 바람이므로 이것을 일삼게 되었으니, 과거 공부가 비록 이학(理學)과는 다르나 역시 앉아서 글 읽고 글 짓는 것이다. 농사짓고 품팔이하고 쌀을 등에 지는 것보다는 백 배 이상 편할 것이다. 하물며 부모를 섬기고 남은 힘으로 성리서(性理書)를 읽을 수 있음에랴. 다만 과거 공부를 하는 자는 으레 득실에 움직이게 되어 마음이 항상 조급하므로, 도리어 노력하여 심술(心術)을 해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선현(先賢)⁹⁾의 말에, “과거 공부가 학문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지만 오직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까 걱정이다.” 하였다. 만일 과거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잃지 않는다면, 과거 공부와 이학(理學)이 병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과거 공부를 한다면 공을 들이지 않고, 이학을 한다면 실지로는 손을 대지도 않고 있다. 만일 과거 공부를 하도록 하면, “나는 이학에 뜻을 두어 과거 공부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고 이학을 하도록 하면 “나는 과거 공부에 얽매어 이학 공부는 할 수 없다.” 한다. 이렇게 양쪽의 편리한 점을 취하여 유유히 날짜만 보내다 마지막에는 과거 공부와 이학 둘 다 성취함이 없으니, 늙어서 늙우친들 소용이 있겠는가. 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벼슬하기 전에는 벼슬만을 급급해하다가, 벼슬한 뒤에는 또 그 벼슬을 잃을까 걱정한다. 이같이 골몰해서 그 본심을 잃은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벼슬이 높은 자는 도를 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물러가야 한다. 만약 집이 가난하여 생활을 위해 벼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중앙직을 사양하고 지방직을 구하며,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를 구하여 굶주림과 추위나 면해야 할 것이다. 비록 생활을 위한 벼슬을 하더라도 청렴하고 부지런하게 공무를 만들어 자기 직무를 다해야 하고, 놀고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

9) 선현(先賢)의 말 : 정이천(程伊川)의 말로, 《성리대전(性理大全)》 55권과 《정씨외서(程氏外書)》 11권에 수록되어 있다.